

은點等 간다라佛의 特徵을 잘 간직하고 있는 法衣는 通肩인데 衣紋은 左腋下에서 三線이 放射狀으로 陰刻되었고 左腹部에도 數條의 陰刻 衣紋線이 있는듯하다. 法衣는 발목까지 내려온듯 하나 무릎에서 한번 두다리를 따로따로 묶어서 무릎 밑은 바지를 입은 것같이 보이나 衣紋線이 없어서 자세한點은 알 수 없다. 左手는 胸前에서 팔꿈치를 直角으로 꾸부러 右側 어깨附近에서 水瓶인듯한 것을 받치고 있는듯 하고 右手 亦是 그것을 잡고 있는듯 하나 右側面 切斷으로 因하여 分明치 않고 水瓶같이 보이는 것과 함께 右側面切斷과 同時에 上下로 切斷되고 있다. 두 발은若干 벌리고 있는데 左足은 前面을 向하였고 右足은 비스듬히 背을 向하고 있다. 像 全體는 正面直立이 아니고 上半身을若干 右로 틀고 있다. 그래서 萬若 右側 切斷된 部分에 如來像이 있었다고 想像한다면 三尊을 이루었을지 모른다. 臺座는 方臺로서 彫飾은 아무것도 없다.

以上과 같이 本像이 秀作은 아니나 石質이나 手法이 간다라佛像의 樣式을 如實히 보여주고 姿勢도 自由로운 表現을 하고 있다. 좀더 形態가 完全하고 刻線이 明瞭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全高 一〇·六 cm 頭高 四 cm 臺高 二·五 cm
臺幅 五×四·二 cm 胸幅 三 cm

(註) 本佛像是 延世大 閔泳珪教授가 所藏하고 있다.

月城郡 吾也里 三層石塔

朴 日 薰

慶州서 北쪽으로 三十里距離의 月城郡 川北面 吾也里 內室部落은 東쪽 獨塔山 西麓에 展開되었고 이 部落의 뒤 山中腹에 若干의 平坦地帶에 高三·六 m 幅(東西)五·四六 m 長(南北)七·二六 m의 花崗石巨巖이 雄座하였다. 그 上面은 若干 平面을 이루었고 거의 中心部分에 三層小塔이 建立되어 있다. 塔材가 一部 缺失되어 現在 完全한 모습의 塔은 못되

지만 構造와 樣式에 있어 一般型塔과 다른點이 있어 紹介하고자 한다.

이 塔은 自然巨巖을 基盤으로하여 初層 塔身 받침은 二個 一石의 別石으로 되어 있고 南向으로 龕室을 設置하였다. 바

닥은 받침 上面이 되었고 前面에 兩扉가 設置되어 있었으나 門扉도 없애지고 上下로 귀틀만 남아있다. 門귀틀 下部것은 塔身 받침에 造出되었고 上部는 塔身에서 처마같이 角形으로 一字로 突起되어 兩端에 귀틀 구멍이 파여졌다. 龕室은 高三七·五 cm 幅三一·四 cm 奥行三一 cm 로 되었으나 內部에 들어갈수록 幅이若干 줄어들고 天井도 낮아졌다. 室內에 信仰의 對象으로 安置되었으리라 하고 믿어지는 佛像是 이미 없어졌다.

屋蓋石은 一層과 二層은 各四個 一石이고 三層은 一石으로 되었다. 塔身은 一、二層은 完存하나 三層 塔身이 아주 缺失되어 現在 二層 屋蓋위에 三層 屋蓋石이 없혀있다.

各層 屋裏의 받침은 一段으로 되고 各層 落水面은 一、二層이 三段、三層이 四段 層級이 上部로 向하여 遞減되어 輓轆塔樣式으로 造出되었다. 二層 塔身은 下部에 一段 받침과 塔身 四隅에 隅柱와 함께 一石으로 造出되었는데 매우 重厚한 手法으로 되었다. 初層 屋蓋上에 놓인 外貌는 塔身 받침이 初層 屋蓋 落水面에 造出된 遞減에 맞추었기 때문에 五段의 層級으로 보인다. 三層 屋蓋 上面에는 徑二〇·五 cm 深一〇 cm의 孔穴이 있으나 相輪部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塔의 初層 屋蓋는 完全하나 二、三層은 簷端과 轉角이 缺失되었고 石材는 各層이 花崗石으로 되었으나 初層 塔身만이 水成岩으로 되어 異彩로워 或은 後補가 많인가 推測된다. 慶州에 許多히 數많은 新羅時代의 石塔이 遺存한中 模輓石塔으로서 芬



皇寺塔을 爲始하여 西岳里永敬寺址塔 南山里寺址塔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또 하나의 模範石塔이 밝혀졌다. 製作年代는 新羅末期로 斟酌된다. 高(復原高)約 二・五〇m로 推定됨.

鎮川 蓮谷里 寺址調査

李 殷 昌

忠清北道 鎮川郡 鎮川面 蓮谷里에 逸名寺址가 있어 筆者는 이 곳을 調査한 바 있는데 그 調査된 것을 이에 略述하고자 한다.

1. 寺址

莊嚴한 山峰으로 둘러싸인 深谷을 이룬 蓮谷里「비선골」部落 一帶가 寺址로 되어 있다. 里名「蓮谷」은 佛敎的인 地名 같아 或 寺址와 關係되는 것만 같기도 하나 그 緣由는 모르겠고 附近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또 三層石塔 一基・石碑 一基・石造佛坐像(註) 一軀가 遺存하고 있는데 特히 石塔과 石碑는 參考가 될만한 資料이다.

2. 三層石塔

民家속에 있는 花崗岩으로 된 總高二・七m의 石塔인 바 基壇・塔身・相輪으로 되어 있다.

基壇은 二層基壇으로 모를 죽인 二個石으로 된 地臺石을 놓고 그 위에 高가 낮은 下臺中石을 놓았으며 各面에 二個씩의 流麗한 眼象을 彫刻하였고 그 위에 勾配와 副椽이 있는 下基甲石을 놓았다. 上基壇은 四枚板石으로 짜인 面石에 四隅柱가 彫出되었고 그 위에 三層級의 副椽이 彫出된 上基甲石을 놓았다. 塔身은 一石으로 된 屋身과 또 一石으로 된 屋蓋를 重積하여 形成하였다. 屋身에는 各層 共히 四隅柱가 闕계 刻出되고 初層屋身 正面(南等)에는 陰刻한 門扉가 있다. 「屋蓋石반침」은 初層이 五段이고 二層이 四段이며 屋蓋上 面은 急한 傾斜를 이룬 落水面이 四隅轉角에서 反轉을 보이고 있는데

三層屋蓋가 缺失되었다.

相輪은 露盤・覆鉢・仰花・寶輪(一個 罽) 寶蓋等이 殘存하고 있으며 이들 殘石에는 圓孔이 뚫여 있어 既往에 鐵製擦竿에 修飾되었던 相輪部가 推定된다.

規模는 작은 塔이나 雅淡하고 彫刻이 精巧하며 그 樣式은 麗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現在 基壇部가 破壞되어 顛覆된 憂慮가 있으니 今後 修理保護策이 要請된다.

3. 石 碑

前記 三層石塔에서 西쪽 約 八〇m 地點인 논가운데에 現存하는 碑인 龜趺・碑身・螭首가 完存하는 것이다.

龜趺는 下部가 地下에 埋沒되어 地臺石 또는 四足部는 알 수 없고 露出된 部分을 通하여 보면 우뚝하게 거북머리가 솟았으니 顛部의 筋莖이 힘 있게 表示되고 背甲과 區分되었다. 兩眼 鼻部는 破損되었고 크게 別린 입은 「앞니」가 羅列되고 兩쪽으로 「송곳니(牙齒)」가 突出되었으며 兩耳가 聳긋하고 귀 밑으로 細毛가 群生하여 氣魄이 있어 보인다. 背甲 全面에는 二重六角形으로 連續되는 龜甲文이 闕계 線刻되었고 背甲 中央에는 碑座가 造出되었으며 碑座는 左右 三角部에 眼象이 보이고 上面은 素瓣伏蓮文이 周刻된 안으로 三段 層節이 있고 長方形 碑座 孔에 碑身을 드러냈었다.

碑身은 帶靑黑色의 烏石 四面을 光澤이 나도록 研磨하였는데 碑文이 없다.

螭首는 九龍과 雲文을 高刻하였으니 그 優作에 注目된다. 九龍은 如意珠를 두고 相爭하는 格인 바 前面에는 二首가 碑額쪽으로 內向하

